

대학주보

무전공 캠퍼스간 전공 선택 불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유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내년부터 시행하는 자율·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캠퍼스 간 전공 선택이 불가한 점에 총학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소통간담회에서 총학생회 대표로 발언한 김준희(기계공학 2019) 부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 무전공 학생의 캠퍼스 간 전공 교차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학생회장은 “(무전공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그 의미가 퇴색돼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안의 공동

대응을 위한 TF팀이나 회의체 발족을 건의한다”고 학교 본부 측에 전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산업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공장, 공공청사 등의 시설을 제한하는 법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지역별로 정해진 정원을 넘겨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측 대표로 답변한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은 “학교의 의지와는 다르게 캠퍼스 간 교차 선택은 구현이 어렵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장은 “이원화 혹은 분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캠퍼스 간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교육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건의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하면 TF를 꾸리는 것”이라며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총학생회 측에서 보류해야 할, 장기 과제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우리학교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에 캠퍼스를 뒤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성균관대는 내년에 도입할 무전공 제도에서 신입생의 학과 선택에 있어 캠퍼스 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미소(한국어학 2021) 총학생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성균관대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성균관대는 내년부터 ‘자유전공 계열’ 모집인원을 신설해 전체 신입

생 모집인원 4,070명 중 7%인 280명을 선발한다. 성대신문 2024년 9월 30일자 기사 ‘자유전공계열, 우리 학교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에 따르면 해당 계열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정원 제한 없이 원하는 학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성균관대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이새롬 선임은 “자율전공계열이 전공 선택에 있어 전 학과를 풀어주는 것이 무전공 제도의 취지”라며 캠퍼스 간 교차 선택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양 캠퍼스 안에 학과 중복이 없고 단일 교지로 교육부에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성균관대와 달리 우리학교 자율·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캠퍼스 간 전공 선택이 불가능한 이유는 캠퍼스 위치 때문이다.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는 수원에, 우리학교 국제캠은 용인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원은 서울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이고 용인시 기흥구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에 따르면 “수원과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관계자 또한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한 캠퍼스 인원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균관대보다 우리학교 무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이 더 주어진 형태”라며 그 이유로 “국제캠에 인문계, 사회계, 예술, 체육, 자연과학 전공이 모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내 심정지 사건 이후 AED 설치 대폭 증가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나사랑 기자 nasarang31@khu.ac.kr

지난 9월 10일 오전 9시경 ‘경제지리학’ 수업이 열린 이과대학 장진 강의실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주위 학생의 빠른 신고로 10분 내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자동 제세동기(AED) 부재로 경희의료원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환자는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사고 이후 서울캠 자동 제세동기 수는 3개에서 23개로 늘어났다. 국제캠은 기존 13개에서 8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치 안내와 사용 방법 교육은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캠캠퍼스 동서의학대학원 1층에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김륜희 기자)

심정지 사건 발생 이후 서울캠 내 20개 추가 설치 완료

사건 발생 이후 AED 현황을 조사했다. 사건 발생 이전, AED는 교내에 단 3개만 있었다. 경영대학에 2개, 행복기숙사 A동에 1개였다. 하지만 건강센터 건강정보관에 공시된 AED 위치는 총 5개였다. 공시된 위치는 ▲청운관 1층 로비(엘리베

이터 앞) ▲세화원 1층 휴게실 ▲평화의 전당 로비 ▲푸른솔 문화관 학생식당 입구 ▲건강센터 내(경영대학 152호)였다. 하지만 그 중 건강센터 내에 위치한 AED 외 4개 위치의 AED는 폐기됐다. 이 사안은 건강센터 공지 사항에는 올라왔지만, AED 장소 지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건 이후 안전팀은 교내에 AED

를 추가로 설치했다. 9월 24일 기준 안전팀은 총 20개의 AED를 설치했다. (설치 위치 3면 인포그래픽 참고)

AED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가까운 곳의 AED를 활용하면 된다. 안전팀은 “교내 AED 설치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없어 그동안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번 문제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설치했다”며 “되도록 건물당 한 개 정도 AED

를 배치했고,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근거리 건물에 있는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제캠, 8개 추가 설치 예정 실제와 다른 위치 공시에 혼란 우려

국제캠 건강센터에는 15개의 AED 위치가 나와 있었다. ▲생명과학대학 ▲체육대학 ▲전자정보대학 2개 ▲멀티미디어관 ▲중앙도서관 ▲공과대학 ▲공학실험동 ▲동서의학대학원 ▲신축실험동 ▲국제대학 ▲애지원 ▲예술디자인대학 ▲외국어대학 ▲학생회관이 공시된 위치였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위치에 모두 가본 결과, 15개의 위치 중 10개(국제대학, 신축실험동, 예술디자인대학, 외국어대학, 공과대학, 공학실험동, 애지원, 전자정보대학,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에만 있었다. 국제캠 관리팀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이마저도 건강센터 내 공시자료와 달랐다. 건강센터 지도에 AED가 있다고 표시된 ▲멀티미디어관 ▲체육대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은 ▲전자정보대학 1층 로비는 관리팀이 제공한 자료에는 없었다. 관리팀 자료에 따르면 건강센터 지도에 없던 ▲우정원 ▲제2기숙사 A·B동에 AED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면에 계속 →